



Amor Fati

미국 출신의 포토그래퍼 애덤 에크버그(Adam Ekberg, 1975년생). 그는 일상 오브제에 잠재한 ‘마법적인’ 순간을 사진으로 끄집어낸다. 뷰 파인더는 피사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다. 작가에게 사물은 인간의 편의품이 아니라 저마다의 자유를 구가하는 존재자다. 캠프파이어를 즐기는 나무, 풍선을 타고 날아오르는 우산, 불꽃을 추진력 삼아 달리는 롤러스케이트…. 사물은 꿈을 꾸다. 사진은 이 비범한 시간을 붙잡는다. 에크버그의 개인전 〈Minor Spectacles〉(2023. 11. 9~12. 23)가 뉴욕 클램프에서 열렸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여기서 ‘운명’은 누군가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요, 의지다. 에크버그의 사물도 그럴진대, 당신도 삶을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조재연 기자 (작품 캡션은 p.166)



우산은 창공으로의 비상을 꿈꾼다. 홀로 자유를 되뇌었을 때, 한 무리의 풍선이 내 손을 살포시 붙잡았다. 너와 나 함께 가는 길, 이젠 하나의 몸 하나의 마음으로...
왼쪽·라이터는 날 수 없지만, 불길은 세상을 향한 꿈을 꺾지 않고 몸을 흔든다. 빨간 풍선의 자태를 닮고 싶다. 바람을 막아줄 우산이 꺾인다 해도 불빛은 찬란히 빛난다.





어스름한 여명일까, 땅거미 내려앉는 저녁일까. 냉기 감도는 숲. 투명한 정육면체가 온몸을 태운다. 나무들이 웅기종기 불을 켜다. 어떻게 지내 요즘? 자연과 사물의 파스한 이야기. 왼쪽·스스로 몸을 태우며 세상을 밝히는 촛불. 몸은 사라져도 영혼이 무지갯빛을 꿈꾼다.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긴다 해도, 나는 외롭지 않다. 무지개, 은총의 빛….





백골만 남아 사라진대도 가여워하지 마라. 너는 뼈가 닳도록 대지를 달려본 적 있는가. 작열하는 태양을 등에 이고 산을 정복한 적 있는가. 이토록 삶을 불같이 사랑한 적 있는가. 왼쪽·땅을 구르는 발과 등을 밀어주는 바람 없이도 바퀴는 활주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울통불통한 대지를, 찌푸린 하늘을, 보잘것없는 벼들을 사랑한다. 이 운명의 사랑….

STAFF	
대표: 김복기 President: Kim Bog-gi 발행인: 김이수 Publisher: Kim Yi-su 편집위원: 김홍기 Editorial Advisor: Kim Hong-ki	
Editorial 부편집장: 이현 Deputy Chief Editor: Yi Hyun 선임기자: 김해리 Senior Editor: Kim Hae-lee 기자: 조재연 Editor: Cho Jae-yeon 기자: 주예린 Editor: Joo Ye-rin 교열: 김유성 Proofreader: Kim Yu-seong	
Design 팀장: 이주연 Art Director: Lee Joo-yeun	
Marketing 팀장: 박수민 Director: Park Su-min 미디어웹사: 프라이머코리아 Media Representative: PRIMER Korea 정기구독: 임은영 Subscription: Im Eun-young	
Management 팀장: 이재원 Director: Lee Jae-won	
Online 디자이너: 박광은 Designer: Park Kwang-eun	
Photography 기자: 황정욱 Photographer: Hwang Jung-wook	
보장: 최규환 CTP 출력 인쇄 제본: 삼성인쇄 경기도 파주시 소라지로 138-37 031-8074-0251 총판: 성운도서유통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79번길 186 031-915-6900	

CONTRIBUTORS

김신식 / 감정사회학 연구자.
저서 『다소 곤란한 감정』.

남웅 / 미술·시각 문화평론가, 인권운동가.
플랫폼 문화비평상 미술비평부문 당선,
SeMA-하나평론상 수상.

박지형 / 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

변종필 / 제주현대미술관장, 미술평론가,
ANCI연구소 부소장. 양주시립장욱진
미술관장 역임. 경희대 미술학과 석사 및
사학과 미술사전공 박사 졸업.

장진택 / 독립큐레이터.

정희영 / 독립큐레이터.

홍지석 / 단국대 미술학부 초빙교수.
저서 『답사의 맛』, 『북으로 간 미술사와
미술비평가들』, 공저 『미술사입문자를 위한
대화』 등.

황인 / 미술평론가.

PHOTO COPYRIGHT

p.41 이장욱 제공 | p.42 ©Kyungsub
Shin | p.45, 133 오른쪽 · 갤러리현대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 Gallery
Hyundai | p.46 조현화광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 p.49 가나아트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 pp.50~51, 137
위 · 스페이스K서울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 SpaceK | pp.53~55, 121, 122
위, 123~125, 134 왼쪽, 136 아래, 142,
144, 147, 149, 151 Photo by 황정욱 | p.57
진지현 제공 | pp.59~61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 p.63 스페이스윙랑앤달링 제공 | p.64
김희수아트센터 제공 | p.67 학교재갤러리
제공, Courtesy of the artist & Hakgojae
Gallery | pp.72~73 김금화 제공 | p.73
Photo by Tobias Kruse | p.74 이지현
제공 | p.75 위 · 김예원 제공, 아래 ·
Courtesy White Cube | pp.76~77 황석호
제공 | p.76 위 · Photo by Sagapen | p.76
아래 왼쪽 · Photo by Aala Nyman | p.78
전정욱 제공 | p.79 권상해 제공 | p.79
©Stilllive | p.79 아래 가운데, 오른쪽 ·
Photo by Yulia Skogoreva | p.80 나비
제공, ©SOMA Art Berlin | p.81 박혜인
제공 | p.81 위 · Nina Sayuri Noriega
Sato | p.81 가운데, 아래 · ©GlogauAIR

Berlin pp.82~83 김호원 제공 p.82 왼쪽 · Photo by Susan Behrends Valenzuela p.82 오른쪽 · Photo by Olympia Shannon p.84 가수정 제공 p.84 위 · Photo by Jonathan Gardenhire p.84 가운데 · ©Asia Culture Center p.84 아래 · Photo by Chris Carr p.85 김태이 제공 p.85 위, 아래 · Courtesy Philadelphia Museum of Art/Photo by Tim Tiebout p.85 가운데 · Photo by Albert Yee pp.86~87 이설희 제공 p.86 위 · Photo by Jacob Friis- Holm Nielsen p.88 조율 제공 p.88 위 · Photo by 정현준 p.88 아래 · Photo by 이프라 사릭 p.89 박유진 제공 p.89 위, 아래 · Photo: Nikola Lamburov, 프로필 · Photo: Nicola Baratto pp.90~91 김해주 제공 p.90 위 · Photo: Mikkel Kaldal. Courtesy of Kunsthall Aarhus p.90 왼쪽, 91 · ©Robert Zhao Renhui p.92 이가현 제공 p.93 마에니 제공 pp.94~95 조혜수 제공 p.96 김예지 제공 p.97 손지선 제공 pp.98~99 이지영 제공 p.100 장재준 제공 p.101 전영 제공 pp.102~103 김기범 제공, ©Commonwealth and Council p.102 위 · Photo by Ramiro Chaves p.102 가운데, 아래 · Photo by Paul Salvesson p.104 김민아 제공 p.105 김기부 제공 p.105 아래 · ©Beijing Tang Contemporary Art pp.106~107 변현주 제공 p.106 위 · Photo by Siniz, 아래 · Photo by 이의록 p.108 클레어 김 제공 p.108 아래 오른쪽 · Photo by Jenevieve Ting p.109 정하영 제공 p.110 최연수 제공 p.111 우인선 제공 pp.112~117 뉴욕 클럽프아트 제공, ©Adam Ekberg pp.118~119, 126 아래 · ©Kohei Nawa, Courtesy Pace Gallery p.120, 122 아래, 126 위, 129 Photo by Nobutada OMOTE p.122 아래 · Courtesy of SCAI THE BATHHOUSE and Sandwich p.126 위 · Courtesy of Aichi Triennale 2013 and Sandwich, 아래 · 샌드위치 제공 p.127 아라리오갤러리 제공 p.128 ©Reborn-Art Festival 2017, Photo: Kieko Watanabe p.132 위, 133 위, 139 위 ·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아래 왼쪽 · 그로피우스바우 제공, 오른쪽 · 아응노미술관 제공 p.133 가운데 · Courtesy of the artist,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p.134 위 · ©Courtesy of the artist p.134 오른쪽, 138 오른쪽 · 리만머핀 제공 p.135 위 · Courtesy: La Biennale di Venezia p.135 아래 · ©Zanele Muholi p.136 위 · Courtesy the Artist p.136 오른쪽
--

· 리안갤러리 제공 p.137 아래 왼쪽 · Courtesy Peres Projects p.137 오른쪽 · ©서도호 p.138 위 · 리움미술관 제공 p.139 오른쪽 · 대구미술관 제공 p.140 위 · PKM갤러리 제공, 오른쪽 · 청주시립미술관 제공 pp.154~157 제이슨함 제공 p.158 Photo by kkachi pp.158~159 ©MSCHF, 대림미술관 제공 p.160 마노엔터테인먼트 제공 p.161 조현아 제공 p.163 위, 가운데 · 인천아트플랫폼 제공, 아래 · 서울시립 난지창작스튜디오 제공, 사진 박현성 p.164 ©Meier Partners Architects, 서울미술관 제공 p.165 포항문화재단 제공

IMAGE LINK

모든 자료는 피그먼트 프린트. p.112 <Bic Lighters, Cocktail Umbrellas and Levitating Balloonarchival> 2022 / p.113 <Levitating Umbrellaarchival> 2021 / p.114 <Candle and Rainbow> 2016 / p.115 <Fire Cubearchival> 2023 / p.116 <Roller Skates and Aerosol Containers> 2017 / p.117 <Burning Skull> 2014

CORRECTION

2023년 12월호 p.130, 134, 143 지역명 '함부르크'를 '베를린'으로 정정합니다. 2024년 1월호 p.150 "1978년 극사실주의 그림 '사실과 현실'의 동인으로 가담해 <형상78>전에 참여하지만"을 "1986~87년 <현·상>전에 2회 참여했지만", "2001년부터 성신여대 서양화와 교수로 재직했다"를 "2011년부터 성신여대 서양화와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다"로 정정합니다. p.156 <시간의 복제-파고다>의 캡션을 '시간의 복제-야침' 박스에 아크릴릭, 오브제 15.5×200×256cm 1996'로 정정합니다.
--